

ROLE MODEL STORY

롤모델스토리 대학입시편 학생부 종합 전형

CASE NO. 294

서울대학교 18학번

경제학부 강민지

PROFILE

기본정보

이름 강민지

학번 2018

성별 여

대학교 서울대학교

계열 사회

학과(전공) 경제학부

출신지역 서울

출신고교 일반고

입시전형 지역균형

확인



희망진로

1순위 경제 정책 연구원

2순위 경제부 기자

3순위 애널리스트

내신등급

국어 1.0

수학 1.0

영어 1.16

사탐/과탐 1.02

수능등급

언어 1

수리 1

외국어 1

사탐/과탐 1.5

ROADMAP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진로희망		· 경제 경영 관련 연구직	· 경제부 기자	· 경제 정책 연구원
희망사유		· 경제 도서를 읽으며 그 분야에 관심이 생겨 경제, 경영 분야의 강연을 찾아 들으며 더 알아보며 공부함	· 경제 지식과 이슈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많은 이들이 어렵게 느끼는 경제를 쉽게 풀어내는 기사를 꿈꾸게 됨.	·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연구원으로 진로를 변경함
수상	학업	· 교과 우수(전과목) · 과제 수행 능력 평가 (국,수,영-금상) · 창의 능력 평가 (생명과학 경시-금상) · 외국어구술 능력 평가 (은상) · 영어 어휘 능력 평가 (A)	· 교과 우수 (기가 제외 전과목) · 외국어구술 능력 평가 (은상) · 윤리적 딜레마 상황 해결 능력 대회 (윤리 경시-장려상)	· 교과 우수 (영어, 사문 제외 전과목) · 윤리적 딜레마 상황 해결 능력 대회 (윤리 경시-장려상) · 공간 탐구 능력 평가 (지리 경시-금상)
	전공	· 1인 1연구 (논문 심사 통과)	· 1인 1연구 (논문 심사 통과) · 경제 이해 능력 평가 (은상)	
	경험	· 진로 UCC 공모대회 (동상)	· 토론 대회 (전체 중 우수토론자, 팀 3위)	· 학교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은상) · 학습플래너 활용 우수
	인성	· 공로상 (학급회장)	· 공로상 (학급회장) · 공로상 (또래상담 동아리 부장)	

ROADMAP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		· 학급 회장	· 학급 회장			
				· 멘토 멘티 프로그램			
	동아리	· 또래상담 동아리 (학교 정규 동아리)					
		· 시사, 경제 토론 동아리 (자율 동아리, 부장)					
				· 경제 동아리 (자율 동아리, 기자단장)			
	봉사	· 교육봉사 동아리 (자율 동아리)					
		·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물품 제작 및 전달					
					· 학급 회장		
	진로	· 다문화 가정 공부방 교육 봉사 (동아리 연계)					
		· 1인 1연구 (소논문)		· 1인 1연구 (소논문)			
					· 앙트십교육		
						· 무크방과후	
독서							

성장과정

저는 화목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특이사항이라면, 사립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이 잡혀있었습니다. 물론 놀 땐 열심히 놀았지만 초등학생 때부터 항상 하루 중 일정시간은 공부에 할애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서도 공부하라고 강요받거나 쫓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펜을 들 때 비로소 편안하게 공부하고, 그에 따라 안정적인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력이 약하고 잠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잠을 깨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써봤지만 매번 실패하곤 했습니다. 의지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남들보다 약한 체력을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릴 때는 잔다" 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졸릴 때 억지로 어영부영 공부하기보단, 1시간 푹 자고 일어나서 절대 졸지 않고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니 시간을 전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고 결과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좌우명은 "놀 때는 놀고, 쉬 때는 쉬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자" 였습니다. 고3이 되니 많은 친구들이 학업과 대입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 또한 힘든 시기가 많았지만 비교적 행복한 수험생활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좌우명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공전략

성공전략 1

높은 내신과 수능 성적

먼저, 수시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내신 성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대학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비교과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가장 우선순위는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것입니다. 또한 주요 대학들의 경우 대부분 요구하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 또한 중요합니다.

성공전략 2

전공 관련 비교과 활동은 되도록 모두 참여

1학년 때는 자신이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지, 대학에 입학해서 어떤 학문을 전공하고 싶은지 다양한 방향으로 모색하세요. (1학년 때는 사실 전공을 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학년 때의 진로가 2, 3학년이 되어서 바뀔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자신의 희망진로에 맞게 그때그때 노력했다는 것만 보여줄 수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학년 때는 전공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전공과 진로에 맞춰 비교과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프로그램 (논문 쓰기, 각종 대회, 동아리, 방과 후 등)이 있다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율체험활동 1

학급 회장

저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에 학급회장을 맡았습니다. 3학년 때는 수능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 회장 선거에 나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2년간 학급회장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반 친구들끼리의 갈등을 조정하기도 했고, 축제에서 반 부스를 이끌기도 했으며, 멘토-멘티나 마니또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2학년 때 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학급 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건의사항과 함께 '고민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저는 회장으로서는 반 친구들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한국사와 경제 과목의 이론을 만화나 연표로 정리해 반 곳곳에 붙여놓았습니다. 저는 시험 기간에 집안 곳곳에 그런 이론들을 간단히 써서 붙여놓았는데, 이런 제 공부법을 친구들과 공유한 것입니다. 반 친구들은 큰 도움이 됐다고 했고, 몇몇 친구들은 성적이 올랐다고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10분 투자했던 일이 많은 친구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강조하는 인재상에는 '글로벌 리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꿈꾸는 대부분 학생은 임원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장을 했다는 기록만 있다면 '남들도 다하는' 평범한 스펙이 될 것입니다. 임원을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반이나 동아리, 학교를 위해 어떤 특별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 면접 등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참된 리더의 자세란?'과 같은 학생의 가치관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에 대답하려면 임원 활동을 하는 동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공부와 회장단을 병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큰 경험과 스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원 활동의 경우 해당 학생이 어떤 과정으로 리더가 되고, 재임 기간에 활동한 결과물은 무엇이며, 활동과정을 통해 변화된 모습이 중요한 평가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임원의 감투에서 벗어나 문제의식을 느끼고 도전하고 이를 통한 변화를 끌어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위 학생은 친구들의 성적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도움이 되고자 자신의 공부방법을 공유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문제의식과 도전을 통해 리더가 갖추어야 자세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성장을 하였다 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리더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학교 내 임원 활동은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좋은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자율체험활동 1

앙트십 교육

2학년 때 진로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진행될 '경영 앙트십 교육'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시험 기간과 시기가 겹쳐 고민했지만, 자투리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앙트십 교육은 이틀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첫날은 경영 이론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고, 둘째 날은 학생 4~5명이 팀을 이뤄 직접 기업을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둘째 날 했던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첫날 들었던 이론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작은 기업을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조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신개념 네이버'를 만들었습니다. 조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처음의 아이디어를 수정, 보완해서 완성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큰 도화지에 우리의 작은 기업을 스케치하고 채색하여 시각화했습니다. 그 후 조장이었던 제가 저희 조의 아이디어에 대해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고 발표하는 프로그램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또한 고등학교에 들어오고 난 후 공부에 매진하느라 이렇게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학교 내 자율활동은 양적인 측면이나 결과에 대한 단순 평가보다는 해당 프로그램의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참여도, 협력도,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누군가는 참여하는 데 의미만 두고, 누군가는 성장의 시간이 됩니다. 이는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위 학생은 시험과 겹친 기간의 활동임에도 진로 관심 분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후, 시험공부는 자투리 시간으로 활동은 조장을 맡아 아이디어와 발표에 기여하였습니다. 자신의 진로 관련 활동에 망설이지 않고 선택하여 열심히 참여함은 물론, 시험에 대비까지 고려하여 행동한 부분은 자기 주도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 1

경제 자율동아리

우리 학교는 정규 동아리가 많지 않은 대신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자율동아리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개의 정규동아리와 3개의 자율동아리를 했는데 그중 가장 활발했던 것이 경제 동아리였습니다.

저는 이 동아리에서 크게 2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무크(MOOC, 외국대학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를 이용해 MIT 경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마다 노트 한 권에 새로 배운 단어, 강의 내용, 강의에 대해 느낀 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강의에 나오지 않은 예시 등을 공유하고, 경제 교과목을 배운 2학년이 아직 배우지 않은 1학년에게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강의를 통해 한번 배우고, 토의를 통해 또 한 번 배우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아리 부원들과 “중앙일보 청소년 사회 기자단”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기자단장이 되어서 우리 학교 동아리 3개(경제, 심리, 사회)를 모아 함께 기자단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기사 하나씩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기자님들의 첨삭과 저희의 보충을 거쳐 실제로 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자단 활동을 하며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발로 뛰어서 인터뷰와 취재를 한 덕분에 더욱 생생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기자단은 제가 자소서 2번에 첫 번째로 썼을 뿐만 아니라, 제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의 관심 영역을 바탕으로 태도, 열정과 도전 정신,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율동아리는 창설 이유와 활동 계획 수립, 활동 및 기록을 통해 학생의 관심 분야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위 학생은 자율동아리 창설 후 구체적인 활동 목표를 정하고 추진함으로써 외국어 역량, 글쓰기 역량, 관심 분야 탐구역량, 리더십 등이 잘 드러나도록 활동하였습니다. 위 학생처럼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 경험을 위해서는, 현재 내가 참여하는 동아리의 주요 활동 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활동 2

또래 상담 동아리

사실 처음 또래 상담 동아리에는 얼떨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규 동아리에 경제 동아리가 없어서 제 적성에 가장 잘 맞는 또래 상담 동아리에 신청했습니다. 얼떨결에 시작했지만, 2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부장이 되면서 많은 교훈과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름 그대로, 친구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친구들은 학업, 진로, 인간관계, 이성 등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에게 털어놓기는 부담스러운 고민을 또래인 저희가 듣고 공감해주고 위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장기적으로' 상담을 했다는 점입니다. 한 번씩 상담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3~4번 이상 상담하며 장기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저와 상담해가면서 점점 웃음을 되찾는 친구들을 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 있었습니다.

또한, 2학년 때 부장을 하면서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25명의 동아리 부원을 이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축제 등에서의 부원들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부원들이 원하는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진정한 리더란, '앞에서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학교별 환경에 따라 원하는 동아리에 가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의 학생도 원하는 경제동아리 활동이 아닌, 또래 상담 동아리 활동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민 상담에 열심히 했던 부분, 2학년 부장으로 동아리를 이끈 것까지, 주어진 여건 내에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이를 통해 배움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후,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나 동아리의 활동계획 등이 내가 원하는 부분과 다르다고 활동을 회피하거나 수동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학생의 성실성, 변화를 위해 도전을 하는 것은 학생의 도전정신과 문제 해결 역량을 보여줄 좋은 사례입니다.

봉사 활동 1

지역 아동 센터 교육 봉사

저는 '무지개 향기'라는 자율동아리에 가입해서 2년 동안 지역 아동 센터에서 교육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가기 전에 교육 관련 영상 (TED, EBS 등)을 보며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필요한 자세와 스킬 등을 배웠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과 낯을 가리는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다가 2가지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먼저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칭찬 판에 스티커 붙이기'를 통해 공부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낯을 가리는 아이들은 대화를 하루에 30분씩 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교육 봉사는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좋아하고 책임감 있게 이끌 수 있는 학생들이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였지만 오히려 제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제게는 뜻깊은 활동이었기에 자소서 3번 첫 번째 소재로 쓰기도 했습니다.

봉사 활동은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성은 봉사의 동기, 목적, 수행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위 학생은 봉사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2년간의 꾸준한 활동으로 지속성을 통해 진정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봉사보다는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봉사기관을 선택하고, 학생의 조언처럼 자신이 좋아하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계획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봉사 활동을 일지를 통해 기록한다면 활동으로 변화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쉬울 거 같습니다.

진로심화 활동 1

1인 1연구 (소논문)

저는 2년에 걸쳐 경제 분야를 주제로 1인 1연구라는 소논문 쓰기 활동을 했습니다. 소논문이 많은 학교에서 '흔한' 활동이 되면서 메리트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학생이 지원학과에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깊이 공부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학년 때는 “다양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행동”이라는 주제로 연구했습니다. 설문지법을 사용할 때 미리 설문지 오류를 알아보기 위해 소수 학생에게 프리테스트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1학년 때의 연구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피드백을 받았지만, 프리테스트를 한 것에 대해 선생님들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1학년 때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2학년 때 두 번째 연구에 도전했습니다. 2학년 때는 “국내외 불매운동의 성패 분석을 통한 성공 요인 탐구”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았지만 1학년 때보다 더욱 발전한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모두 면접에서 소논문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의 경우, 인성 면접 10분 내내 제 소논문에 대해 이야기만 했을 정도로 면접관님들이 주의 깊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소논문에 헌신해서 자소서에도 쓸 것도, 면접장에서 이야기할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논문은 자신의 지원학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소논문 자체가 평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학생의 구체적인 탐구 노력, 즉 소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업역량 및 전공 적합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위 학생을 두 번의 도전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발전된 모습으로 결과물을 완성해 갔습니다. 이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및 탐구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혹, 2번의 소논문을 작성한다면 위 학생처럼 기존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수정 및 보완한 새로운 시도를 추가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진로심화 활동 1

무크(MOOC) 방과후

해외 대학 강의를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서 들을 수 있는 MOOC가 유행하면서 우리 학교에도 무크를 들을 수 있는 방과후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그 때 3학년에 들어섰기에 방과후에 참여할지 말지 고민했지만, 해외 대학 강의를 들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참여했습니다.

2학년 경제 자율동아리에서 MIT 미시경제학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방과후에서는 UCL 거시경제학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방과후에서는 무크 강의를 듣고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 PPT를 만들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는 경제 안에서도 실업과 국제무역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이를 주제로 2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강의 내용을 통해 배운 것 외에도, 실생활에서의 예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등을 인용해 발표를 더 채워나갔습니다. 또한, 영어 선생님과 경제 선생님께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PPT를 보충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유학을 가지 않으면 듣기 힘든 해외대학 강의도 듣고, 그것을 제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도 거칠 수 있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을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관심 분야에 대한 무크 강의를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진로 활동은 지원자의 관심 분야에 기울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위 학생은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MOOC 방과후 활동을 신청하여 관심 분야 강의 수강 및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진로 탐색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시간이나 공간의 핑계에서 벗어나 적극성을 가지고 관심 분야 탐색을 한다면, 세계 주요 대학의 강의 (MOOC), 한국 대학의 강의 (K-MOOC)를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독서 활동을 펼치고, 스스로 주제를 정하여 탐구해 보며 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독서활동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 무하마드 유누스

이 책은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해주었습니다. 1학년 때 경제 강연에서 '그라민 은행'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 은행이 어떻게 사람들을 돕는지 궁금해져 이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통해 설립자인 무하마드 유누스가 그라민 은행을 만들고 운영하기까지의 과정과 그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인간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가난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다'라는 문장이 가장 감명 깊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가난'이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존엄성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후 저는 빈부격차와 가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누스는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숭선수범했고, 많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의 정신을 본받아 '실천하는 경제학자'가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효율적 이타주의자 | 피터 싱어

빈부격차 해결에 관한 책을 찾던 중 독특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효율은 이타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믿었기에 책 제목이 모순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은 후에는 제목을 이해할 수 있었고 더불어 제 가치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자선은 국가가 우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저자의 주장에 따라 세계 시민주의와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국내와 해외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자의 주장에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저자는 "타인을 도울 때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연민, 공감과 같은 감정으로 남을 돕는 것도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를 읽으며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틀에 박힌 사고를 부수고, 제가 자라온 배경에서 벗어나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또,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경제학자'라는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 | 장자크 루소

저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에 큰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타고난 가문이나 권력에 의한 차별이 팽배한 현실이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불평등은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궁금해져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읽었습니다. 현재 우리를 '보호'하는 법과 사유재산제가 사실은 불평등의 시초였다는 루소의 주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의범절, 존경, 호의와 같은 긍정적 덕목이 모순적이 되기도 갈등 상황을 초래했다는 생각이 들어 공감되기도 했습니다. 사회 문제의 해결법을 찾으려면, 먼저 문제의 원인과 기원을 고민해보아야 한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학년이 되어 윤리와 사상에서 사회계약론을 배우며 루소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철학을 배우면서 제가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나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루소처럼 사회를 변화시키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는 용기와 비판적 태도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독서활동

스타벅스 감성 마케팅 | 김영한, 임희정

경제, 경영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물론 다른 분야의 친구들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브랜드인 스타벅스 속에 숨겨진 상술과 마케팅 기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스타벅스 매장의 풍경과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MIT 경제학 보이지 않는 마음

자본주의의 발전과 자유, 합리적 사고에 대해 쉽게 풀이해준 책입니다. 두 선생님 간의 대화와 갈등, 이해를 전제로 하므로 딱딱하지 않고 소설책을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클라우드 슈밤의 제 4차 산업혁명 | 클라우드 슈밤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그에 대한 책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고려대 토론 면접에서 이 책에서 읽은 내용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다양한 예시로 이해시켜주는 책입니다.

클라우드 슈밤의 4차 산업혁명 | 클라우드 슈밤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그에 대한 책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고려대 토론 면접에서 이 책에서 읽은 내용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다양한 예시로 이해시켜주는 책입니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 토드 부크홀츠

여러 경제학자의 일화와 그들의 경제 이론들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놓은 책입니다. 경제학과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경제 교과 시간에 경제사를 깊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책으로 보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Justice | Michael J. Sandel

워낙 유명해서 많은 학생이 읽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책이라고 생각한다. 공리주의 등을 다양한 예시로 재미있게 설명해줍니다. 특히 영어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원서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창업국가 | 댄세노르, 사울싱어

이스라엘이 어떻게 최고의 창업 국가가 될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 책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창업이 뜨면서 성공적인 창업 국가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태도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기소개서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제가 공부한 과정은 '벽돌집 짓기'와 같았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전과목을 고루 공부하며 지식이라는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 날 배운 과목의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며 질문 노트를 만들어 선생님께 질문하고, 관련된 책을 읽으며 보충했습니다. 또 스터디를 결성하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2학년 때는 경제, 3학년 때는 한국지리 스터디를 만들어 점심시간마다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배운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혼자 공부할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부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동안 쌓은 벽돌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한결같은을 유지했습니다.

경제 공부를 할 때는 수업, 책, 강의, 발표라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수업에서 실업을 배운 후 실업에 대해 더 찾아보다 보니, 실질 실업률이 공식 통계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업 현황과 문제점을 더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라는 책을 읽고 '청년 실업'이 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해결한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기존 해결책으로 임금피크제와 최저임금 인하가 있었지만, 두 정책의 양면성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양면성을 주제로 시사 토론 동아리에서 토론하면서 두 정책이 궁극적인 해결법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수업인 HIGH-MOOC에서 UCI 거시경제학 강의를 수강하며 실업을 더 알아보았습니다. 실업 분류 체계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차이점도 배우고 해결책을 위한 아이디어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존 기업은 인원이 제한적이기에 새 직업과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창업 클러스터'를 떠올렸습니다. 그 후, 실업 이론과 창업 클러스터에 대해 발표하며 모든 학습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니 교내 경제 경시대회와 경제인증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경제학을 깊이 공부한 후 다양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1,500자 이내)

경제 동아리에서 부원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내 3개 동아리를 연합해 청소년 기자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 편의 완성된 기사를 위해 주제 선정부터 기사작성, 퇴고까지 매 단계 노력했습니다. 광화문 시위 취재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청소년들을 인터뷰하며 생동감 있는 기사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경제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국정농단으로 인한 주가 하락과 광화문 상권의 변화까지 조사하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성 들여 쓴 기사가 신문에 기재되는 뿌듯함을 원동력으로 매 기사를 즐겁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단 활동을 하며 사회를 넓은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세계는 작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배웠으며,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단에서 옥시 불매운동의 실패를 취재하며 불매운동에 흥미를 갖게 되어, 2학년 때 불매운동의 성패 사례를 분석하는 논문을 쓰며 1인 1연구 활동으로도 이어갔습니다. 학생들의 불매운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며 청소년들이 불매운동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 불매운동은 실패 사례가 많은 반면, 해외는 성공 사례가 많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불매운동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부족한 이유를 분석해보니 우리나라는 영향력 있는 단체의 개입이 적었고, 기업은 마케팅과 홍보로 무마하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해외 성공 사례를 보면 유명인과 각종 단체가 불매운동을 이끌었고, 정부 또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불매운동도 하나의 '운동'이기에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 주제 상 2차 자료를 많이 인용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1인 1연구를 통해 하나의 이슈로만 생각할 수도 있었던 불매운동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분석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1,500자 이내)

영어 말하기 대회 또한 제가 애정을 쏟은 활동입니다. 2년간 대회에 참가했는데, 1학년 때 공정무역을 주제로 한 발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 3세계 사람들이 겪는 착취와 가난을 해결할 방법으로 공정무역을 떠올렸고, 기업의 공정무역을 장려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두 주제가 모두 쉽지 않았던 만큼 발표 준비도 어려웠고, 미흡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특히 경제 용어를 영어로 바꿔 설명하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제 선정부터 대본 작성과 수정, 발표 연습까지 온전히 제 힘으로 노력했기에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대본을 준비하면서 공정무역의 사례를 찾아보고, 관련 논문도 참고하며 공정무역에 대해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청중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조, 발음, 강세 등을 여러 방법으로 시도하며 호소력 있는 화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은상이라는 값진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경제를 주제로 준비했기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즐겁게 과정에 임했습니다.

자기소개서

3.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저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잡담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몰라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소통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상담 이론을 익히고 더 많은 친구의 고민을 듣기 위해 또래 상담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배운 상담 기법을 실천에서 적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정작 고민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상담 덕목'을 만들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지속성과 비밀유지였습니다. 친구를 오랜 기간 관찰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지속성을 중시하였고, 한 친구와 일 년에 5번을 상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비밀을 유지하는 모습에 친구들은 저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상담할수록 밝아지는 친구를 보며 제가 도움이 되는 상담자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상담의 기본적인 본질을 지키고 나니 배운 기법을 적용할 여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래 상담반을 통해 소통에서의 저만의 기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많은 친구들을 위로해주었고, 저 또한 많은 친구와 친밀함을 형성하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단장으로서 3개 동아리를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모든 기사에 피드백을 주거나 모든 단원의 일정을 조정하는 일보다도 어려웠던 것은, 기사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인 주제 선정이었습니다. 주제를 정할 때마다 부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인정해주면서 효율적으로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주제 선정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부원들은 서로의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은 모르는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주제만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서로를 이해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유롭게 하고 싶은 주제를 제시한 후, 모든 부원이 서로의 주제를 사전조사 해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모든 주제에 대해 한 번 더 조사하고 정리하여 풍부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후 다시 모여 토의를 통해 최종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서로의 배경지식과 의견을 공유한 후에는 주제 선정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사전조사를 한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만 채택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부원들 간의 이해를 높여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효율적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

4. 해당 모집단위 지원 동기를 포함하여 고려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고려대학교 4번 내용>

3년, 제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고민을 거듭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보니 제가 경제를 공부할 때 가장 번뜩이고 몰입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자율동아리와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하며 경제를 통해 사회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경제를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메르스 후속 정책이었습니다. 2015년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고자 우리나라는 블랙 프라이데이, 개별 소비세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고, 소비 동향은 점점 좋아져 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경제 정책이 사회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경제를 깊이 공부하여 최선의 답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경제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독서를 통해 경제에 대해 더 배우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빈부격차에 관심이 많아 그에 관한 책을 연쇄적으로 읽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 <효율적 이타주의자> 등의 책을 읽으며 빈부격차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흐름 있는 독서를 하면서 경제연구원이 되어 빈부격차와 같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한편, 2년간 교육 봉사를 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으로서 교육 봉사를 이어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제 지식과 에너지를 나누어 줄 것입니다.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경제학자가 되기 위해 이렇게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 장점인 '끈기'로 경제를 심도 있게 공부한 후 꼭 제 목표를 이룰 것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에 대한 지식을 탄탄히 쌓은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경제 정책학과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남을 도우며 사는 사람이 되자'는 제 좌우명이 부끄럽지 않도록 학업적으로도, 봉사의 측면에서도 항상 노력하는 고려대학교 학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경제라는 학문과 더불어 더 넓은 세계에 나아갈 새로운 시작이 꼭 고려대학교이기를 소망합니다.

논 구술 면접후기

구술/면접 진행시 질문/답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진행 후의 심정과 결과를 확인한 후의 구술/면접 전형이 갖는 의미 등을 기술해주세요.

저는 (서류 100이었던 성균관대 제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면접을 봤습니다.

서울대는 100% 인성 면접이었는데, 단순히 인성 혹은 서류 확인 면접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지원자가 경제 이론과 경제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수학 문제 (도함수, 미분계수의 정의)를 내기도 하셨고 경제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8분정도 했습니다. 수학 개념 정의를 물어보실 때 당황했지만, 간략하게 아는 만큼 말씀드렸습니다.

고려대는 토론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성 면접 때부터 교수님들께서 거의 붙었다는 듯이 말씀하셔서 서로 농담도 하고 편안하게 봤습니다. 토론 면접은 지원자들끼리 토론을 하는 것이었는데, 특이사항이라면 교수님들의 개입이 거의 없이 학생들끼리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세대는 제시문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제시문 면접 때 그래프 하나를 반대로 해석해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결과는 합격이어서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저와 선생님들과 부모님은 서류 면접 점수가 높았거나, 면접 태도를 중시하였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고 추측합니다. 인성 면접은 1인 1연구로 10분 내내 면접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자신 있었기 때문에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논 구술 면접후기

구술/면접 진행시 질문/답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진행 후의 심정과 결과를 확인한 후의 구술/면접 전형이 갖는 의미 등을 기술해주세요.

제가 구술면접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특이한 답을 말해도 나름의 근거와 소신이 있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같은 대답을 해도 자신감이 있을 때 신뢰가 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소입니다. 저는 들어가면서 인사를 할 때도 활짝 웃으며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드렸고, 많은 면접관님이 무표정이다가도 인사를 듣고 활짝 웃으며 대답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내내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웃는 얼굴은 학생의 밝고 자신 있는 태도를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고 수용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교수님께서 이견을 말씀하시거나 지적을 하실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이견도 수용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학문을 '배우러' 가는 학생이기에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술면접은 평소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은 면접이 닦쳤을 때 해도 좋지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태도는 평소에 만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감 있지만 또 겸손하고, 밝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구술면접은 성공적일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1. 학습 태도

입시를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못 본 시험에 좌절하고, 한번 잘 본 시험에 자만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제 경우엔 긍정적이고 단순한 성격의 득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입시를 치르면서 수많은 굴곡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다 지나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입시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2. 휴대폰 관리

저는 고1, 2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3학년 때는 폴더폰으로 바꾸어 사용했습니다. 개개인의 자제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와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3학년에는 2G폰으로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중독성이 강한 SNS의 활용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SNS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체력 관리

저는 체력이 안 좋고 운동도 싫어해서 꽤 고생했습니다. 고3이 되니 밤새며 공부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졸릴 때는 자고 깨고 나서 열심히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도 최악은 아니지만, 잠이 적고 체력 좋은 학생이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동 꾸준히 해서 꼭 체력 키우시기 바랍니다!

4. 비교과

1, 2, 3학년 때 한 모든 비교과 활동과 수행평가, 발표, 독서 등은 다 기록해두는 게 좋습니다. 3학년 때 자소서 쓰려고 하면 자료도 없어지고 기억도 안 나서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목-일자-내용-(특별히) 나의 역할-느낀 점' 순으로 기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모든 증빙자료나 참고자료, 예를 들면 발표 스크립트나 PPT 등은 꼭 하나의 컴퓨터 파일에 모아두기 바랍니다. USB는 잃어버리기 쉬우니 아예 하드디스크에 저장해주세요!

3년의 입시는 단거리 레이스가 아닙니다. 장기간 정성을 들여야 하므로 지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험생활을 하는 내내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명언을 되새겼습니다. 여러분도 책임감을 느끼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